

2010년 3월 16일 선생의 가치(100118)-정명심

대구 스타교회 정명심

영하의 추운 날씨속에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추운 날씨속에 월명동 기도굴, 대둔산 독수리봉에서 기도하셨을 선생님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께 그 당시 상황과 예수님의 심정을 여쭙었습니다.

2010.1.18 예수님의 말씀

내 사랑, 너는 적어라.

(그 시절을 회상하시며 만감이 교차하시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시절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너무나 혹독하고 추운 날이었다. 너희 선생은 얇은 점퍼 하나 걸쳐 입고 나를 불렀다. 애인으로서, 사랑으로서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노라.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나의 신부로 더욱 연단시켜 후에 더욱 큰 것으로 후히 주려고 너희 선생, 내 사랑 절대 불만 불평 없었다. 그는 나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노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휘날리는 날에도 날마다 나를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내 아버지를 불렀노라. 아, 애닦은 그 모습, 내 마음 아팠노라. 선생의 귀함을 알라. 오늘날 그의 그 당시 몸부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너희도 없었노라. 선생이 있기에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와 통하게 되었노라. 선생이 없었으면 나의 진리도 받을 수 없었으며 생명 부지하기 어려웠노라.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어려움의 구원길. 그의 몸부림으로 쉽게 왔노라. 언제나 감사 감격하라.

(순간 동굴에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지옥같은 환경, 동굴에서 나를 찾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딜가나 그는 나를 찾는 자였다. 동굴이 대수며, 무덤가가 대수며, 산꼭대기가 대수겠느냐? 그는 어딜가나 나를 찾아 천국으로 만들고 나를 모실 장소를 생각했다. 자기보다 나를 최우선 했노라. 그래서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노라. 생명은 그의 실천에서 나온 것이다. 모진 눈보라 그의 마음을 강타할 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를 보면 나는 너무나 든든하다. 그가 있어 희망 끝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선생 너무 귀한 자야. 너희는 겪어보지 않았니. 그의 일상은 모두 나의 것이야. 그의 것이 없다. 나부터다, 나 먼저다. 좋은 것은 다 내꺼다. 예쁜 내 신부. 이러니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를 뒤로하고 형제를 뒤로하고 산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큰 결단이 없으면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나를 선택한 내 사랑, 그러니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어 예수님께서서 선생님께 편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신랑 영원히 변치 않겠노라. 아, 내 신부야. 오늘도 나를 위해 이 고난의 길 가는 너를 안고 싶구나. 너와 나의 첫 만남, 작은 꼬마로 왔는데 어느덧 성숙하고 속깊은 나의 신부가 되었구나. 내 사랑아 처음부터 나는 너를 택하였노라. 내 신부 내 곁에 두고 영원히 살려고 너를 불렀고 이제야 고백하노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노라. 처음부터 너는 내 애인, 내 신부였노라. 너를 너무나 사모하고 사모하노라. 조금만 참고 견디어줘. 너는 내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둘 것이다. 기쁘지? 나도 그날 생각하니 더욱 기쁘다. 설렌다. 아무 고통 없는 그곳에서 너 행복하게 해줄거야. 내 고백 믿어줄 수 있겠니? 들직한 내 신부, 나는 오늘도 너를 믿고 이길 걸어간다. 나의 벗, 나의 신부, 내 사랑아 오늘도 사랑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자.

(마지막으로 섭리 모두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라. 기도는 이루어진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는 그의 손을 멈추지 않게 하리. 너희가 살려면 선생 위해 기도하라. 나 예수가 권고하노라. 사랑해서 말한다. 나는 너희 삶속에 항시 있는 예수니라. 너희 선생을 진정 사랑하느냐? 그럼 선생 위해 기도하라. 그의 가치는 내 삶과 피와 같은 가치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행복한 삶속에 실천이다.